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북성구지 (北城串)

## 풍어 (豊漁)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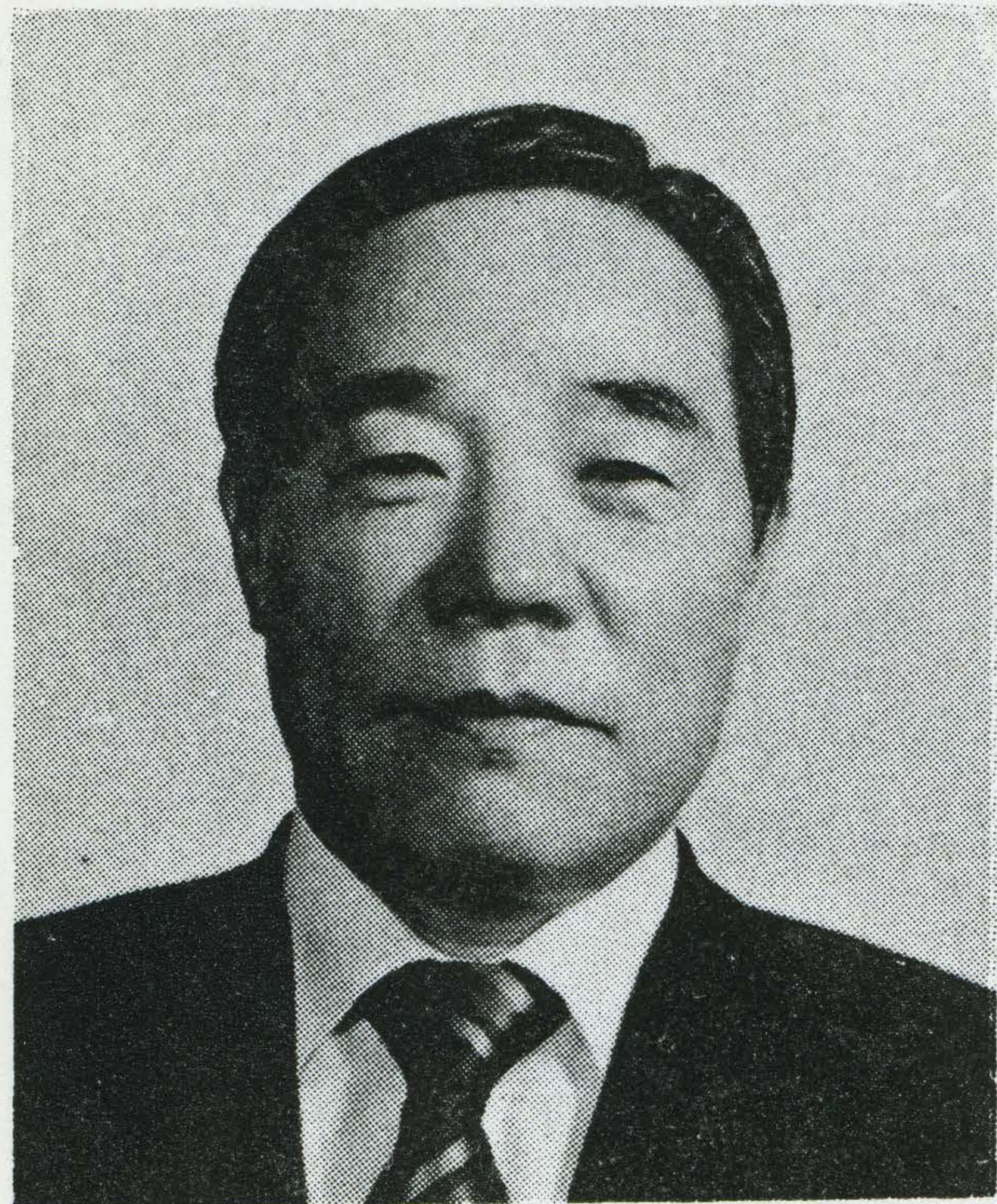


때 : 1986년 10월 17일  
장소 : 천안시공설운동장

仁 川 直 轄 市



## 人事말씀



仁川直轄市長      朴      培      根

하늘 드높고 菊花香氣 그윽한 佳節을 맞이하여 옛 우리 祖上의 生活모습과 숨결을 느낄수 있는 第27回 全國民俗 芸術競演大會를 由緒깊은고장 天安에서 열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40萬 仁川市民과 더불어 祝賀하는 바입니다.

民俗芸術은 民族文化의 뿌리이며 民族精神의 源泉으로서, 오늘날 交通通信의 發達과 高度産業社會化함에 따라 價值觀과 生活樣式이 急激이 變化하는 現時點에서 잊혀져가고 整理되지 않은 우리의 傳統民俗을 所重히 發掘, 保存하는 것은 民族精氣와 創造의 原動力을 간직함과 같다 하겠습니다. 歴史的으로 民族芸術에 對한 所重함을 알고 그 바탕위에 外來文化를 收容한 나라는 大部分 찬란한 民族文化를 꽃피웠음을 볼때, 매해 熱을 더하여 열리는 全國民俗競演大會는 배달겨레의 同質性을 確保하고 繁榮을 다짐하는 祝祭라 생각됩니다.

이번 저희 仁川直轄市가 선보이게 될 “北城구지(北城串) 豐漁노래”는 이고장 先祖들의 生活의 一部分으로서 豐漁와 安寧을 빌고 마을사람들의 途災招祝을 祈願하는 노래로 이제까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鬘소리部分을 重點的으로 發掘하여 操業光景 및 祝祭風景과 같이 再現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仁川이 出演한 北城구지 豐漁노래가 우리나라 民俗芸術發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아낌없는 聲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大會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感謝를 드리며 天安市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 金 順 濟

인천교육대학교수  
인천지방문화재위원  
인천민속문화보존회이사

中部地方 仁川은 예로부터 여러곳 사람들이 모여사는 지역적 여건으로 경서토리와 시나위토리의 노래가 공존하는 특성을 지녀왔다.

포구의 굿만 해도 꿩이부리는 내륙지방의 告祀형식 이었고 동막 (동춘동)은 世襲巫가 주제하는 都堂굿 이었으며 두레패의 두레소리 가사는 佛經을 해석한 것이었고 서곶(西串)은 安宅굿형식으로 치루었었으며 북성구지(北城串)는 降神巫가 주제하는 西北圈形으로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북성구지의 꽃창굿 (꽃당굿→꽃창굿)은 都堂굿의 일종으로 굿의 날자가 정해지면 이곳이 끝나기전에는 뱃고사 또는 배연신굿이나 안택굿 심지어 병굿까지도 금하도록 하였다 한다.

꽃창굿 18거리가 행하여지는 동안이나 배연신 또는 뱃고사때, 잔치석상에서 마을사람들이 즐겨부른 노래는 「배치기」 「바디소리」 「나나니타령」 「난봉가」였으며 조업때는 일에 맞추어 「바디소리」 「노젓는소리」 「달감는소리」 「그물당기는소리」 를 불렀고 여인네들이 굴을 쪼거나 조개를 캐때나 김말때 「군음」을 불렀었다.

### ●배 치 기

치기는 자치기 비석치기 딱지치기와같이 명사 다음에붙어 놀이와 내기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일(노동)을 위하여 불리워진것이 아니라 꽃창굿이나 배연신을 지낼때 풍어를 기원하는 뜻으로 부르기도 하고 만선을 나타내는 船上배치기도부르기도하나 마을 또는 선주집마당에서 만선귀향을 축하하는 뜻으로 마을사람 전체가 풍악에 맞추어 흐드러지게 노래하는 흥겨움이 배치기의 참맛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 노래를 이물양(이물에 담긴 고기의 量), 에밀양(이물양의 변화), 奉柱打令, 奉竹打令(봉주, 봉죽……눈금을 새긴 대나막대기 즉 일종의 자(尺)로 이물 복판에 꽂아 고기의 양을 가늠하는데 쓰였다), 봉기타령(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표식으로 봉주나 봉죽에 旗와 꽃을 달았다), 덕담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



### ● 닻감는 소리

항해를 위하여 닻을 감아올릴때 부른 노래로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일대에서 많이 불리워 졌으며 남해안 일부와 동해안지방에서는 별로 불리워지지 않은 노래로 충남 이북지방에서는 하청·중청·상청이라 하여 음의높이가 세차레 꺾이어 올라간다.

### ● 노젓는 소리

예전에는 노를 저어 항해하였으므로 노래도 제법 많았고 그 내용도 지방마다 달라 대체로 경기이북의 것은 약간느리며 구성지고 경기이남(충청도)은 펍 느리고 구수하며 경기지방은 그 중간으로 구성지며 구수한 맛이 나고 전라도 지방은 바르고 씩씩한편이다.

### ● 그물소리

닻감은 소리와 가락이 같다.

### ● 바디소리

그물의 고기를 배에 퍼실올때 부르는 노래로 서해안지방에서는 주로 바디소리·테질소리라고 하며 전남지방에서는 슬비소리 남해안 일부와 동해안지방은 가래소리 또는 사리소리(웃이 나오면 사리났다 하는데서 온것)라고도 하는데 인천지방에서는 바디소리를 많이 부른다. 바디란 고기를 푸는 도구의 이름이다.

### ● 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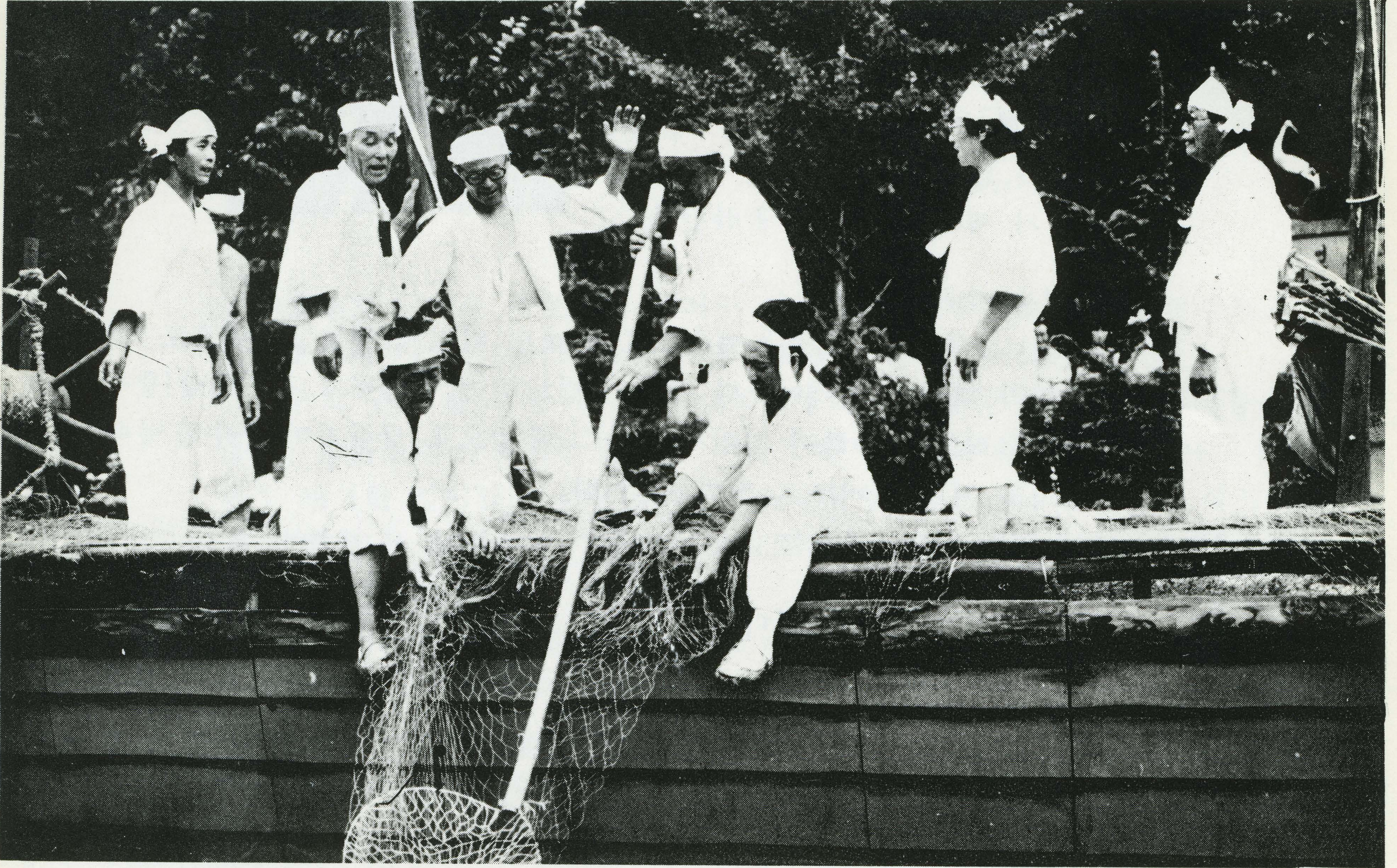
인천, 용유도, 덕적을 위시하여 옹진앞바다의 섬에서 불리워진 여인네들의 일 노래로 한이 서려있으나 끝부분에 흥겨운 난봉가를 불러 심신을 달래는것이 이채롭다. 일의 끝나나 놀이의 끝에 그만 끝내고 돌아가자는 뜻으로 부르는 노래가 난봉가 인것은 연평도와외의 어업관계로 북쪽지방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보인다.

### ● 나나니타령

인천, 용유도, 강화, 장봉, 덕적, 연평도, 백령도 등 크고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널리 불리워진 부녀자들의 노래로 지방에 따라 새연평소리라고도 하는데 자배기에 물을담아 바가지를 얹어 띄우고 나무젓가락과 또아리(또는 솔뿌리로 만든솔솔)로 두드리는 물장고(水鼓, 水岳)에 맞추어 이노래를 부를때는 시어머니, 시누이, 며누리의 구분없이 여성으로서의 일체감으로 묶어지며 남성들은 간섭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 어부들의 일노래



「닷감는 소리」 「그물당기는 소리」 「노젓는 소리」 「바디소리」가 모두 완전4도·단3도·장2도·장2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닷감는 소리」와 「그물당기는 소리」는 노랫말이 다를뿐 같은 가락이며 「노젓는 소리」 「바디소리」는 메기는소리의 가락이 제법 길고 음악적이다.



## 노젓는 소리

받는소리 : 여차, 어차, 엉차라  
메기는소리 :

어여 디여차  
우리배 동사는  
근력이 좋아  
잘두젓네  
달은밝구  
명랑한데  
고향생각이  
절로난다  
우리배 늦것이  
가사나무냐  
노 상채는  
박달나무 상채데  
상채가 말랑말랑  
대겨서 저어보자  
어여차 디여차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 있거든 사위삼우  
딸은 하나 있다마는  
나이가 어려서 못삼겠네  
아이구 할머니 그말씀 마시오  
참새가 작아도 알만놓고  
제비는 작아도 강남을 가요  
어거여 디여 어여차  
손빨리젓세 물때놓기전에  
우리배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조기(새우·민어)를 많이 잡아야  
배임자네 아줌마  
다주출려보지  
어거디여 어여차  
어떤사람 팔자좋아  
고대광실 높은집에서  
공단이불을 피어놓고  
창포밭에 금잉어가 놀듯이  
둥실둥실 잘두 노는데  
우리인생은 무슨팔자로  
기박하여 소금에찌서  
죽은나무를 꺼꾸로 타고서  
처자식두 못보구 떠땡긴단 말이나

## 바 디 소리

받는소리 : 어야 바디야  
메기는소리

어여차 바디여  
어바디가 뉘바디냐  
0 선주네 복바디다  
임장군님 고이모셔  
썰물에도 천여동에  
들물에도 만여동에  
테질마다 금덩이 나오네  
어야 바디야  
오동추야 달두나 밝은데  
바디질 하기가 재미가난다 (나누나)  
우리동사 근력이 좋아서  
연평바다 들은 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퍼다 실는다(실어라)  
어야 바디야  
나가는 길에는 깃발속에  
들오는 길에는 꽃발속에  
가지가지 오색꽃에  
명지필을 통삼에 두르고  
삼철이십일 중동에 발랐다  
어여차 바디야  
모진광풍은 내불고  
명지바람은 드러불어라  
한술두술 덤뽕뜨니  
우리배는 만선되네  
달두밝구 명랑한데  
바디소리 능청맞다  
어야 바디야  
들물에도 두 석동 썰물에도 두 석동  
모두잡아 마포로 실리세  
단테질로  
퍽퍽뜨새나  
어거디여  
양반님네 김치국 떠먹듯  
덤뽕덤뽕  
잘도나 뜬다  
어기여디여  
민어도 올라오고  
조기도 올라온다  
어야디야라  
골장열게  
시참까지 떠야되겠네  
어기디여  
오늘도 만선이로구나



# 군 음

음계구성은 「나나니타령」과 같으나 메기는 소리의 첫째음이 음계구성의 중간음으로 되어 있다. 창자의 기분에 따라 단 7도 또는 완전 8도 위음으로 시작할때도 있다.



받는소리 : 응~으응~왜 생겼나  
메기는소리

심난심난 구심난한데 오라버님 오셨구라  
일점혈육 사춘오라버니 내서름을 들어보소  
초세살에 어머니 잃고 초다섯에 아버지 잃고  
초일곱에 삼촌집에 었혔더니  
밥이라고 주는것이 알강조밥에  
국이라고 주는것은 구데기 등등뜨는 된장국이요  
동지섯달 설한풍에 쥐구녁에 눈드릴적  
삼베것이 웬말이나 것발벗고 살았구나  
그럭저럭 먹은것이 초아홉이 되었구나  
허구헌날 발두덕에 갯바닥에 내몰더니  
웬수로다 웬수로다 알락조개가 웬수로다  
날밀어낸 사춘오라비 샷대가락이 웬수로다  
떠내려가네 떠내려가네 내가 떠내려가네  
한자세치 내머리칼 갈기갈기 헤쳐지며  
배꽃같은 흰살결은 바위마다 부딪혀서  
갈기갈기 찢어지네 양치기배에 건져져서  
이집저집 안잠배기 그럭저럭 먹은것이  
삼오십오 열다섯에 중신에미 들락날락

시집이라 갔더니만 서방이라고 육십이진동  
부엌이라고 들어가니 계딱지로 술을걸고  
명아주뿌리로 불붙이고 바가지한쌍 없구나  
외틀비틀 사미잡년 깐죽깐죽 시뉘잡년  
범난골에 다잡아 들이랴더니  
이구십팔 열여덟에 홀과수가 웬말이나  
서방죽고 내가살면 열너가 되는가요  
애구애구 내팔자야 애구애구 내팔자야  
못살겠네 못살겠네 나는못살겠네  
이렇게 속상해서 나는못살겠네  
한번가신 우리님은 돌아올줄 모르고  
꿈속에만 오락가락 애간장을 태우누나  
대동터의 소뻘다귀 털이나면 오시나요  
평풍안에 그린닭이 활개치고 꼭꼬하면 오시려나  
시렁아래 삶은팓이 싹이나면 오시려나  
가마솥에 개삶은게 뚜껑열고 멍멍하면 오시려나  
산이높아 못오시나 물이깊어 못오시나  
산이높아 못오시면 말을타고 오시지요  
물이깊어 못오시면 배를타고 오시지요  
못살겠네 못살겠네 나는못살겠네  
우리님 보고파서 나는못살겠네



# 나나니타령



음계구성은 完全4도·단3도·장2도·장2도로 구축된 5個音 구성으로 아래의 보기와 같이 완전4도·단3도와 완전4도를 이루는 소리를 바탕잡아 다시4도·2도를 쌓아올린 混飮음계로 볼수있다. 일반 일노래(勞動謠)와 같이 맥이고 받게되어 있으며 맥이는소리는 가락도 제법 길고 사실적인데 받는소리는 가락도 짧고 그것도 같은 가락에 같은 노랫말로 이어나간다. 또한 메기는 소리가 음계구성의 바탕음으로부터 완전8도 또는단7도의 위음으로 노래를 시작하는것이 특징이다. 반주로 치는 물장구의 장단은 굿거리의 속한 조금빠른 장단이며 잔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나나니타령

받는소리

나나나나 사니로다 아니놀고 뵈할소나

메기는소리

새연평 꼭대기 실안개 펄펄돌고  
우리네 문턱엔 정든님만 돈다

오이밭의 웬수는 고슴도치가 웬  
수구 우리네 웬수는 백년이 웬수  
로다

백년을 살자고 백년초를 심었더  
니 백년초가 못되고 이별초가 되  
었네

잘살라고 할 적에는 보리동냥을  
갔는지 이모양 이꼴이 되었네

우리네 서방은 재간이 좋아서  
계딱지 타고서 낙시질을 갔네

앞산 밭에다 외콩을 뿌렸더니  
외틀비틀 시미잡년

뱃사람의 님은 못새겨 돌거지  
정들만하면 닻감아 매네

새연평 산은 칙산이요  
연평산은 춤산이로다

장산곶 마루에 실안개 펄펄 돌고  
우리집 문턱엔 내아들만 돈다

새끼나 백발은 쓸곳이 많고  
인간의 백발은 쓸곳이 없네

뒷강에 뜬배는 낚시질배요  
앞강에 뜬배는 나를 실을배라

나를 실러올적엔 반돋을 달고  
나를 실고갈적엔 꼬작끝 달아라

시집살이 못하면 단가살이 할망정  
술담배 아니먹고는 나는 못살겠네

뒷동산의 할미꽃은 늙으나 젊으나  
꼬부라만 졌네

바다의 물결은 내맞춰 일고  
정든님 생각은 때없이 나네

아주까리 동백아 열리지마라  
이팔청춘 다늙는다

우리네 서방은 명태잡이 갔는데  
바람아 광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천길만길 뚝 떨어져 살아도  
有情님 떨어져는 못살겠네

으스름 달밤에 머리수건 쓴년은  
도적년이 아니면 화냥년이로구나

밥먹기 싫은건 두었다가 먹지만  
임보기 싫은건 하루일시도 보기싫어

앞산밭에다 깨를한줌 뿌렸더니  
깁죽깁죽 시늬잡년

시미(시어머니)잡년이 뒤지면  
아랫목차지는 내차지요  
시비(시아버지)잡놈이 꺼꾸러지면  
광열쇠 몽땅내차지

못살고 잘사는건 내분복이요  
정들이고 못사는건 화류계여자

날데려가려마 날데려가려무나  
한양낭군아 날데려가려마

님이란건 탄탄남인데  
밥먹다 졸아도 정든님생각

으스름 달밤에 샷갓을 쓴놈은  
도적놈이 아니면 유부녀볼놈이로다



연평도물이 마르면 말랐지  
내주머니 돈이 마르라

나물캐러 간다더니 총각낭군 무  
덤에 삼오제만 지내네

새벽동자를 하라면 바가지쌈만  
부치고 물길러 가라면 엉덩이춤만  
춘다

우리부모님 피에는 홍두깨꽃이  
피었는지  
우리삼동서 폐난봉 났구나

잘사는 시집살이 왜 못살게 하고  
뒷감당 못할걸 왜 시작했나

소대섭 색시들은 잔디풀캐기가  
일수구  
육거침 색시들은 배불림하기가  
예사라

강화의 색시는 시침떼기가 일수구  
인천의 색시는 뼈죽거리기가 예사라

가막개 색시는 얼마나 짹짹하던지  
밥주걱 쥐고서 민어금 치기가 일수  
물먹고 싶은건 참을수나 있지  
정든님 생각은 끝일날이 없네

일구나 월심에 그립던 입을  
어느시절에 다시 만나 하소연을 할까

네가 나만큼 사랑을 한다면  
가시덩쿨 속에라도 날 찾아오게

사랑에 겨워서 등을 슬쩍밀었더니  
가고영절에 무소식 이네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나  
나를 두고가는 임은 가고싶어 가나

나비없는 동산에 꽃은피어 뭘하나  
임없는 방안에 불은밝혀 뭘하나

심난심난 구심난한테 친정오라버님  
왜왔다 가나

오동나무 열매는 옹통몽톨 하구요  
처녀의 가슴은 몽실몽실 하네

답답한 안개는 꺾다가도 벗건만  
답답한 내속은 언제나 벗으라

우수나 경첩에 대동강 풀리고  
정든님 말씀에 내가슴이 풀리네

장독밑에다 더덕을 한줌 심었더니  
더덕더덕 내동생아

열라는 콩팥은 아니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열리나

살림살이 할러니 바가지한짝이  
없구요

도망질 할러니 가자는님이 없구나

임이죽고 내가살면 열녀가 되느냐  
고달파라 인생살이 한두 많으네

쓸쓸한 동풍에 굶은비만 내리고  
시하나 연풍에 임만나 노세

하느게 (하늬) 사랑은 솔방울 사  
랑인지

정들만하면 떨어지고 마네

산에나 올라가 옥을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다

처녀마다 시집을 간다면  
기생될이가 어디 있느냐

들창밖에 내리는 비는  
가신님들의 눈물이다

사랑사랑 하길래 무엇이 사랑인가  
했더니  
한품에 들고보니 요것이 사랑이더라

병신의 종자가 또 따로 있나  
한팔한발 절면 병신의 종자지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 어제는 청춘이었는데  
오늘은 백발이 되었네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마라  
시골 큰애기 난봉난다

내머리 석자 내뎡기 석자  
이바우 저바우 다 뜯기네

살림살이는 될지말지 한데  
호박에 박넝쿨 울넘어 드네

서산낙조는 내일아침 다시 뜨건만  
한번가신 서방님은 언제 다시오시  
려나

세월이 가겠으면 저혼자 가지  
우리부모님은 왜 다 데려가나

저건너 계집이 얼마나 좋길래  
날두고 저렇게 바빠가나

영출나오네 영출나오네  
해산밑으로 영출나오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우리들이가 요렇게 좋은걸 나는  
몰랐네



# 배치기



어부들의 일노래들은 맥이는소리가 음계구성의 폭이 넓고  
 가락도 길며 가락스럽고 사설적인데 반해 받는소리의 음  
 계구성은 그 폭이좁고 가락도 단조로운데 「배치기」는 그  
 와 정반대로 받는소리의 음계구성이 맥이는소리보다 그  
 폭이 넓다.

메기는 소리 ————— 3 — 2 ————— 단 3도 · 장 2도

받는 소리 ————— 3 — 2 — 3 ————— 단 3도 · 장 2도 · 장 3도



배 치 기

받는소리 : 에~에~어하요  
메기는소리 :

명복을 빌었다 명복을 빌어  
임장군님 전에다 명복을 빌어

본당 성황님 귀히 보셔(보시어)  
만대동에 우리배 도장원 주신다

덕덕선에 유덕선이야  
해옥난간을 일러볼가

이물에는 이사공 고물에는 고사공  
허리띠밑에 화장애야 물아래 철  
량을 휘어 실어라

내골에는 이름을 놓고  
남의 골에는 명을 놓아요

배임자 아주머니 정성덕에  
연평칠산에 도장원 할결세

연평바다에 갈린생선  
양주만 남기고 다잡아 올리세

이번 행부에 도장원하면  
화장에 길러서 맞사위 삼겠네

첫정월 부터 치는북을  
오월 파송까지 내눌러 치잔다

나갈적에는 중군 북이요  
들올(들어올)적엔 승전북이야

사해포천에 이름농자  
각기 여각에 명을 낳게

북성구지 앞바다 개시가 되면  
우리 배옥선 도장원 할결세

재산떠미에 닳을 주고  
천량떠미다 쟁기를 준다

연평바다에 널린 철량  
자치만 남기고 다잡아 들여라

연평바다 널린재산  
우리유덕선 다잡아 올리세

어영차 디여차 닳감아 신고  
연평바다로 돈실러 간다

본당장군님 모셔시고  
도선주 불러 장원을 줍시다

암해 수해 맞아취노니  
칠십발 그물이 두둥실 낫땀다

오동추야 달밝은데  
새우젓 잡기가 재미가 난다

우리배임자 아줌마 거동을 보아  
라 다리발 아래서 엉덩춤 추누나

뱃전네 아줌마 인심좋아  
막동말 길러서 화장을 췌단다

우리배에 상고배 다둘러 대더니  
하라지에 배포장 들렀다

조기(나) 비늘로 갓을쓰고  
술로다가 떡을감고 떡으로다 팔  
매를 쳤소

본당장군님 귀히모셔  
우리구지에 오색꽃 피었다

가스래 뿌리를 썩돌아서니  
댕기는 펄러덩하고 앉았던 마누  
라들 설래발 치누나

뱃집의 아줌마 정성덕에  
일대동 만대동 도장원 했구나

봉죽을 질렀다 봉죽을 질러  
이물 고물에 쌍봉죽 질렀다

삼국충신 임장군님  
우리배임자님 불러서 도장원 주  
었소

오동추야 만시춘하니  
우리배 기죽에 오색꽃 피었소

내려가는 장두리배 올라오는 시  
선배 우리배 꿈무니에 다 둘러땀  
소

선머리 쳤다 선머리 쳤다  
우리배 사공이 선머리 쳤다

배임자 아줌마 인심좋아  
냉수만 달래도 소주만 준다

아랫등 웃등 다 제쳐놓고  
가운데 등에서 선머리 쳤단다

한물거리에 천여동 이요  
두물거리에 만여동 이로다

아랫등 웃등 다 제쳐놓고  
가운데 등에서 북치고났소

연평바다 만시춘하니  
가지가지가 봄빛이로다

양대고작에 장어발 이요  
명지바람에 깃바람이라

앞바다 뒷바다 열두바다  
수물네바다에 도장원이요

나갔던 유덕선 돌아오니  
경기도 일경에 돈풍년 들었소

이물에다 호기를 지르고  
고물에다 봉죽을 질렀다

동사님의 거동을 보아라  
도장원 했다고 호능청 대누나

명지바람은 깃바람이요  
양대고작에 마파람이라

올 일년에 신수가 티어  
이물대 밑에서 반남아 훑는다

짜돈 궤돈 바리돈 짜돈  
은자보물에 녹수천량

섯달그믐날 꽃은 봉죽  
칠월물림에 다 제쳐놓았소

암해 수해 맞아취놓고  
여드래 팔자로 두둥실 낫땀다

나가는 길에는 깃발속에  
들어오는 길에는 장아발에  
삼칠이십일 중동에 발랐다



————— 지 도 —————

李 鮮 周  
한국무용협회인천직할시지부장  
인천민속문화보존회상임이사

李 炳 玉  
경 기 대 학 강 사  
송 의 여 자 전 문 대 학 강 사



# 출 연 자 명 단

仁川民俗文化保存會員

배역	성별	성명	연령	배역	성별	성명	연령
선주	남	김호성	65	선주부인	여	김황룡	60
도사공	남	김강창	57	영자	남	안승삼	77
이사자	남	고초재	67	사공	남	정원채	68
사공	남	송의신	67	사공	남	한복수	69
사공	남	조원선	65	사공	남	이계한	60
화장	남	박인겸	37	선소리꾼	여	이차영	50
동리사람	남	손낙인	70	동리사람	남	유재웅	71
"	남	심상각	67	"	남	구태서	69
"	남	박희양	65	"	남	탁기성	66
"	남	최원철	54	"	남	김해수	59
"	남	박이섭	48	"	남	유갑춘	52
"	여	임규례	72	"	남	신무삼	44
"	여	김부례	64	"	여	권용녀	66
"	여	유귀현	63	"	여	정혜녀	64
"	여	유옥녀	62	"	여	이순녀	63
"	여	유옥선	62	"	여	김순덕	62
"	여	김종해	61	"	여	김용애	61
"	여	김영분	60	"	여	김한복	61
"	여	최길룡	58	"	여	이정순	59
"	여	김정자	58	"	여	김연희	58
"	여	최경애	57	"	여	이남복	58
"	여	박경애	57	물장고	여	김인분	57
"	여	최경애	57	동리사람	여	홍순녀	57
"	여	송순녀	56	"	여	배옥녀	56
"	여	최효순	55	물장고	여	최보애	55
"	여	이연애	55	동리사람	여	채풍년	55
"	여	박선옥	54	"	여	이정순	55
"	여	김정열	50	"	여	이규분	53
물장고	여	이명신	33	물장고	여	김매물	47
"	여	김정숙	29	"	남	정매산	17